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79표를 얻어 선출됐다.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前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은 129표를 받았으며, 대우 스님과 해종 스님은 각각 1표를 얻었다. 무효는 1표였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박빙으로 예상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50표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거인단이 체제 안정을 통한 변화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직후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도들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으며, 향후 포부도 내놨다.

자승 스님은 "중단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저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언급한 자승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모인 종도들의 해안과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종도들에게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혼자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종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행풍토 진작과 중단 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범어 스님(사진 왼쪽)이 10월 10일 179표로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10월 11일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인준을 받아 총무원장 당선자가 확정됐다. 사진=박재관 기자

179표 얻어 129표 받은 보선 스님과 50표 차이 개혁 중단 이후 첫 연임... 청정성 회복 등 과제 "향후 4년 한국불교 도약의 시기 될 것" 소감 밝혀

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33대 집행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대사회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겠다는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이제 과거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사회와 국민 앞에 더욱 다가서고자 한다"며 "연기와 종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향도하고, 우리 사회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개혁 중단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연임 총무원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그만큼 향후 자승 스님이 내세운 정책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백상사 승려 도

박 사태와 최근 무분별한 내부고발로 인한 중단 청정성 회복은 당장 자승 스님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또한 과열됐던 선거 분위기를 잠재워 선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자승 스님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 영조 스님의 명의로 원로회의에 공문을 보내 총무원장 인준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일간지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자성과 선행 결사본부장이신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위원회 중심으로 쇄신안을 실천하고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는 화합이 우선이다. 선거를 함께 한 후보를 비롯 모든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고, 화합을 위해 만남의 자리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0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24명의 원로위원 가운데 재석의원 19명이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인준했다.

이에 따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연임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임기는 오는 10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3면

창간 19주년 특집 -현각 스님 e메일 인터뷰

한국불교에 바란다



쇄신의 완성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어낼 수 있는 통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국 불교에 대해 스님이 던지는 쓴 소리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과 '한국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배현진 기자

-현각 스님, 최근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세계각지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격지는 독일이지만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때로는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정진도 합니다."

-한국에는 현각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스님 중 한 분이셨는데 왜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저의 스승님, 승산 대선사님이 2004년에 열반 하셨습니다. 그분이 열반하시기 전부터 많은 서양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스승님이 한국에 안 계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하시고 3년간 스승님의 위패를 모시면서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 및 불교 사회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명해지기 위해 계획하거나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유명해진 것은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진수양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힘들기도 했고, 사실 여전히 유명세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건강도 영향을 받아 구안와사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유명한 사람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보다는, 조용히 혼자서 깊은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수련하는 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졌을 때 이곳 강원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왔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단순히 '오, 그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코 크고 눈이 파란 유명한 스님은 한국에서 숨기 어려울 겁니다."

-유럽에서의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작은 선센터 '불이선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독일 및 유럽 타 지역에서 가르침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 보다 레겐스부르크라는 독일의 다른 도시에 더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떠도는 스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어딘가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A5면에 계속

2013년 창간 특집호 INDEX

A 신행	6
외국 청년들 템플스테이 홍보 나선다	
복지	7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센터와 MOU	
창간19주년 특집	14
박성배 교수의	
간화선 핵심 '전의'	
강의실 중계	21
통도사 한주 시명 스님	

B	창간19주년 특집	
	노인 포교 현황과 과제	1~4
	자비의 전화 현장을 가다	6
	미리보는 불광研修 국제학술포럼	8
	이제는 사찰도 신용카드 시대	14

창간 19주년특집 48면 발행

국보 '에밀레종' 복제해 타종한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경주시는 2014년 말까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에밀레종을 복제해 매년 타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밀레종은 문화재의 안전과 훼손 등의 우려로 타종이 영구 중단된 바 있다. 경주시는 시 주요행사 등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복제한 에밀레종 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원형의 모습과 소리를 되찾게 될 에밀레종 복제품은 청동재질에 높

이 3.75m, 둘레 7m, 무게 18.9t 규모로 제작된다.

경주시는 2014년 초 에밀레종 복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며, 종을 설치할 장소로 대동원 인근 등 3~4곳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성덕대왕신종인 에밀레종은 신라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 742년에 제작에 들어가 771년 해공왕 때 완성됐으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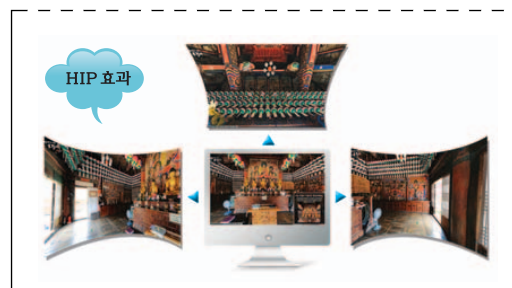
노덕환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 국보·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 산·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학 협력 협약체결 등
-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개념 도입
-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 기획·설계
- ▶ 국·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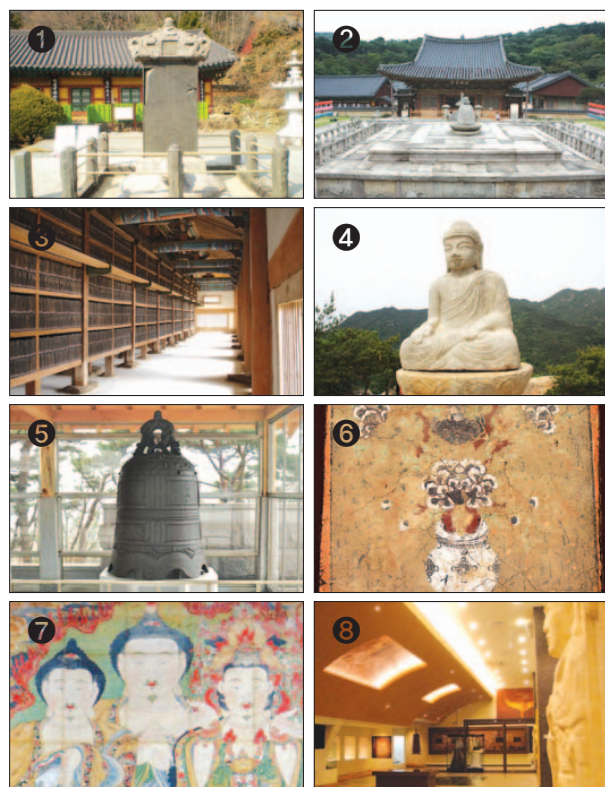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페이지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환경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 CRM 용역
- ▶ HIP 기획·제작
- ▶ 박물관 전시·기획
-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 문화상품 기획·개발
-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 [국보 제 47호]
- [국보 제132호]
- [국보 제285호]
- [국보 제290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 [보물 제146호]
- [보물 제218호]
- [보물 제295호]
- [보물 제925호]
- [보물 제1242호]
-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 [시도유형문화재 제130호]
-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 쌍계사 전감전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①
- 장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②
-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③
-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 창녕 판문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 창녕 판문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④
-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 중국철계법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⑤
-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⑥
- 봉선사배불 보수사업 ⑦
- 광혜군 내의 및 상공우 보수정비
-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충전시 및 복원)
-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⑧
- 세계유산등재추진 공평화석(발자국) 레플리카 제작공사
-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형에 충실하겠습니다